

# 2011년 미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닭고기 수출 전망



김동욱 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본고는 Poultry international 2011년 1월에 기고된 글로 2011년 미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닭고기 수출 전망에 관한 것으로, 2011년 한국의 닭고기 생산량 및 소비량 예측,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수입 닭고기 시장 변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 1. 한국의 닭고기 소비량 및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2011년 한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가금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660,000톤, 전년 대비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농무부(USDA) 대외 농업 기구(Foreign Agriculture Service)에 따르면 한국의 닭고기 소비량 역시 737,000톤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 역시 90,000톤 가량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의 증가는 소비자가 건강을 고려하여 돼지고기, 소고기 등 타 육류 보다 닭고기를 선호하는데 있다. 또한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647,000톤으로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는데, 이는 월드컵 특수를 맞아 후라이드 치킨과 같은 패스트푸드 및 배달음식의 소비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 닭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 1~7월 닭

고기 평균 소매 가격은 1kg당 5,901원(US\$ 5.31)으로 2009년에 비해 11% 가량 증가했다.

사료비는 생산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비의 약 60%에 달한다. 2010년 1~7월 사료비는 큰 변동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듯하지만 실제 과거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사료비가 닭고기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사료비 상승으로 증가한 생산비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 2.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 증가 추세

2011년 한국의 닭고기 예상 소비량은 737,000톤으로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2011년도 닭고기 소비량이 지난 2년간에 비해 다소 낮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사료비로 인한 닭고기 가격 상승과 월드컵과 같은 세계 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닭고기 소비량은 721,000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7%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0.2kg(정육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2010년 닭고기 소비량 급등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월드컵 기간 후라이드 치킨과 같은 치킨 배달 프랜

차이즈 제품의 소비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적용했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국내산(한국) 닭고기의 수요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10년 봄 한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닭고기 소비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최고의 간식 : 닭고기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닭고기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총 닭고기 소비량의 50% 가량이 후라이드 치킨과 같은 치킨 배달 패스트푸드라고 밝혔다. 또한 월드컵 기간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낵 식품으로 치킨이 피자 등 다른 스낵 식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역시 닭고기 소비량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단백, 저지방 식품은 닭가슴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닭고기 소비 형태는 삼계탕과 같은 통닭 위주의 식문화였으나, 국민 소득 증대, 세계의 다양한 닭요리 체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부분육 소비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보다 많은 닭고기를 소비하게 될 것이며, 통닭에 비해 요리하기 간편한 부분육에 대한 수요 및 소비시장 역시 지속

적으로 커질 것이다. 아직까지 통닭 형태의 소비가 전체 닭고기 소비량의 60% 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부분육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실시

2010년 6월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닭고기 구입시 선택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소비자의 80% 이상이 원산지를 최우선시 한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한국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 가능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원산지 표시제가 국내 육계산업 보호 및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2011년 1월부터 기존 5만 마리 이상 도계하는 대형 도계장에만 적용되었던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제를 모든 닭 도축·보관·운반·판매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닭고기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국가정책이 별크 형태로 닭고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가공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수입 지속적 증대

2011년 한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90,000톤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닭고기 원산

지 표시제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해 수입물량이 다소 감소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닭고기 가공에서의 수요 증가 및 안정된 통화로 인해 감소 물량과 금액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한국의 미국 닭고기 수입물량은 45,000톤 정도로 예상된다. 닭고기 수입물량 중 닭고기육은 2010년 1/2분기에만 대략 37,000톤(전체 수입물량의 70%)에 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일시적인 수입 폐쇄 조치에 따른 미국의 수출 가능한 닭고기 물량 증가와 한국의 닭고기 수요 증가가 맞물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의 닭고기 수입물량 중 가공장, 요식업계, 치킨 배달 프랜차이즈 등에 사용하는 닭다리육이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닭다리육 제 1 공급국으로 2010년 1~6월 약 23,400톤을 수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이 약 13,000톤을 수출했다. 미국과 브라질 닭다리육의 평균 가격, 보험 및 운송 비용은 각각 1,474원, 2,432원/kg으로 이는 브라질의 경우 발골 작업으로 인해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산 닭다리육은 3~5배나 더 비싸다.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닭가슴육에 대한 수입물량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출처 : South Korea's broiler output to continue higher in 2011(by Kathleen McLaughlin, Poultry International, 2011. 1)